

7월 2일 & 3일  
모금

내연은을모금

자 리...  
자 리...  
나...  
나...

# <획일적 입시위주 교육과 청소년의 인권>

## - "2004 청소년인권을 말한다"

###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발제문

희...  
희...  
희...

- \* 공동토론, 공동작성  
남궁정(이대부고 2)  
김상이(청원여고 2 · '희망' 동아리 회원)  
전누리(구로고 2 · 학생회 부회장)

우리는 흔히 청소년을 '미래의 희망'이라고 칭하는 표현을 주위에서 많이 접한다. 확실히 청소년들은 기성세대 이후의 우리 사회를 짊어지고 나아갈 큰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은 아마 백번을 생각해봐도 옳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에서, 집에서, 사회에서 항상 '꿈을 키우고 주체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2004년 현재, 사회적으로 그러한 '의무'가 주어지는 우리 청소년들의 권리, 청소년들의 인권은 과연 어떠한가. 우리는 '입시위주 교육'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인권에 대한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생각해보았다.

### 1. 강제적인 0교시, 보충학습, 야간자율학습

0교시를 실시하는 학교들의 등교시간은 평균 오전 7시-7시 30분 사이이다. 새벽 5시 30분-6시 사이에 일어나서 졸린 눈을 비비며 급하게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은 뒤 아침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학교로 향한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소년들은 0교시 시간에 대부분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졸음을 못 이겨 잠을 잔다. 그나마 아침 일찍 아이들을 불러 수업을 해서 학교에서 얻어내고자 하는 효과마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특기적성'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하는 0교시 수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규수업 진도를 그대로 나가거나 문제집을 푸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당초 '특기적성교육'의 목표와는 아무 관계없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방과 후 보충학습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7시간의 정규수업이 끝난 뒤에 청소년들은 씻거나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똑같은 수업을 2시간 더 들어야 하는 것이다. 별다른 내용이 없으면서 '특기적성'의 감투를 씌우는 것은 0교시와 같다. 특히 보충학습은 여름방학에는 평균 15일, 겨울방학에는 30일 정도를 역시 '특기적성'이라는 명목으로 실시되고 있고 심지어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는 일요일을 비롯한 공휴일에도 학교에 나오도록 하고 있다.

야간자율학습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밤 9시까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밤 10시, 11시를 넘기면서까지 강제적인 '자율학습'을 시키는 학교도 있다. 자기 몸을 꼬집으면서까지 졸음을 참으며 억지로 공부를 하는 청소년들 중 일부는 '야자'가 끝나고 또다시 집에서 과외를 받거나 학원으로 향한다.

평균 수면시간은 4시간-6시간, 청소년들은 다음날에도 또 다음날에도, 3년 내내 이러한 일과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0교시/보충학습/야간자율학습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선, 청소년들에게 건강상의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준다는 것이다. 하루에 너댓 시간을 자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러한 생활이 반복되면서 누적되는 피로는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어깨/허리통증, 눈의 피로, 피부 손상은 물론, 장시간 의자에 앉아있음으로써 척추에 무리를 주게 되고 정신력 저하와 학습의욕 감퇴, 불면증, 노이로제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심신의 안녕을 보장하고 보호해줘야 할 청소년들을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심신의 안녕'을 침해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0교시/보충수업/야간자율학습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보다는 학교 측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시키는 것이다'라는 논리로 학부모들을 부추기면서까지 청소년의 인권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을 강제로 학교에 잡아두고 있는 실정이다.

꼭 강압적으로 선생님이 강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학생들이 선생님 앞에서 '싫다'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생활태도를 보고 선생님들께서는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신다. 모든 것이 입시와 연결되어 있는 현실에서 솔직히 우리 청소년들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는 학교와 교사의 압력, 체벌과 징계, 폭력까지 동원되면서 청소년들이 순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이 일반화되어있어 학교라는 곳이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인 선택의 자유'라는 권리를 박탈하고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여가시간을 갖는대거나 자기계발을 할 시간은 고사하고 생리적인 활동을 할 시간, 수면시간마저 부족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교시/보충학습으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감을 주는 것도 폐해 중 하나다. 정규수업이 아닌데도 4만원-10만원의 '특적비'를 강제적으로 더 내야하는 것이다. 아예 수업료에 포함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문제집 등 교재를 따로 사야하는 경우에는 과목 당 8천원-9천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 완전히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돈을 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0교시/보충수업/야간자율학습을 시행했을 때 과연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가. 앞에서 밝힌 것처럼 이 시간에 청소년들은 부족한 잠을 보충하거나 너무 오래 이어지는 수업에 집중력이 크게 떨어져 제대로 학습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특별한 내용이 없이 교과진도를 나가는 수업은 청소년들을 다시 사교육에 의존하게끔 만들고 있다. 어쨌든 많은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몇 시간을 보내든 상관없이 아직도 계속 학원에 나가고 과외를 받고 있다.

이러한 0교시/보충학습/야간자율학습의 문제들은 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에서, 평준화 지역보다는 비평준화 지역에서 더 광범위하고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파행운을 방관하고 묵인하는 교육당국에 의해 이러한 문제는 개선하려는 노력은 물론이고 시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

0교시/보충학습/야간자율학습이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크나큰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인권침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는 것은 결국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입시 위주 교육에 원



인이 있다고 본다. 대학입학만을 최우선 가치로 보고 '입시를 위한 효율성과 능력'-사실은 그리 효율적이지도 않지만-만을 중시하는 학교교육과 교육제도가 고쳐지지 않는 한 이러한 강제적인 0교시/보충학습/야간자율학습은 계속해서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면서 더 큰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앞서 이야기 한 0교시 등 불법적인 비정규 수업이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현상으로써, 바로 청소년들이 교육주체이자 학교의 주인으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학생자치활동'을 할 시간마저도 빼앗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청소년들이 이러한 극심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아무 말 못한 채 순응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하거나 어떤 공간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입시위주 교육이 청소년자치활동을 어떻게 방해하고,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짚고 넘어가 본다.

30%

## 2. 청소년자치활동-CA/동아리/학생회

### (1) CA/동아리

우리의 속에 어떠한 재능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숨겨진 끼와 재능을 찾아내고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된다. 학교 안에서의 CA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이 그 예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활동들은 정말 우리의 재능을 찾아내어 개발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설정되어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먼저 CA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살펴보자. 학교에선 오직 공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공부외의 다른 시간들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활동 시간은 너무나도 부족하다. 1년에 고작해야 10번 안팎인 활동으로 과연 우리 우리 속에 잠재되어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

또 아이들은 CA나 동아리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 하지 못하고 있다. 활동 시간을 우리의 또 다른 재능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인식 하기보다는 적당히 시간이나 때우는 시간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다양성과 전문성부족, 중요성 교육 부족, 예산부족등과 같은 이유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CA나 동아리활동의 선택의 폭은 제한되어있어서 다양성이 부족하여 대부분 비슷비슷한 CA, 동아리 모임이 생성된다. 어느 학교에선 25개 정도의 CA의 중 영화 감상반만 14개 정도가 있다.

2%

또한 그 동아리나, CA의 담당 선생님은 전문적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져 학생들의 의욕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그 동아리나 CA의 뚜렷한 목표나 색을 잃게 된다. 또 이러한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서 CA자체를 노는 시간이라 오해하는 아이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정부는 단순한 입시제도뿐만 아니라 이러한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게 아이들에게 자신의 꿈을 향해 이러한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

2%

럼 CA, 동아리 활동을 방과 후 운영 하여 입시제도에 반영 한다든지, 그러한 활동을 하면서 추천서를 받아 입시에 반영한다든지 말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활동을 하려면 금전적 문제, 즉 재정 지원이 해결되어야 한다. 어떤 학교 밴드부는 밴드부 임에도 불구하고 연습실이 없고 악기가 없다. 하지만 학교는 학교 측이 알 바가 아니라고, 예산이 없다며 외면한다. 이렇게 금전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CA나 동아리 활동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분명 우리는 입시제도의 판에 박힌 공부 외에 자신도 모르는 재능, 개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한 외침들을 듣지 않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묵인하게하고 좌절하게 만든다. 하루빨리 교육관계기관과 학교에서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과 입장을 바꿔 생각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게 해 이러한 괴리감을 없애야 할 것이다.

## (2) 학생회

학생회는 흔히 '학생 자치 활동의 꽃'이라고 이야기 될 만큼 중요한 자치활동의 영역이며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유일한 통로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학생회가 자기 본분을 다하거나, 활발히 활동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현 중·고등학교 학생회가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 이유는 바로 입시위주의 교육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학생회 활동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학생회 간부들도 중간고사에 기말고사, 수능이 닥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학생회 활동을 접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도 학생회, 동아리 활동, 축제 등등 학생자치활동이 시험이나 면학분위기를 흐리고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회 활동에 대한 지지, 지원이 미약하며 활동에 제약이 많다.

뿐만 아니라 학생회칙은 많은 문제가 있다 하겠다.

학생회칙에 보면 학생회, 학생회의 목적은 학생들의 기구로서 민주적,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적 시민 함양을 위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많은 학교의 학생회칙의 목적으로 명시해 두고 있다.

그러나 과연 많은 학교 혹은 이런 목적을 규정해두고 있는 학생회칙들이 이런 목표를 지향하고 있을까? 그러나 각 학교의 학생회 활동의 실상과 학생회칙을 천천히 살펴보면 학생회 활동의 목표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먼저 분명 회칙의 목적에서는 자율적 자치활동을 규정해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학생회칙의 기능과 권한(혹은 현실적 학생회의 활동)을 살펴보면 모든 학생회의 활동은 학교당국(학생회 지도위원회)의 사전·사후 지도뿐만 아니라 승인 또는 재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것이 자율적인 자치활동인가? 물론 학생회 활동이 교육활동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런 과도한 권한은 지도가 아닌 자치활동의 장악, 혹은 사전 통제의 의미 밖에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회칙을 살펴보면 학생회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까지 있다.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진행한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을 통해 만들어진 교칙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189개 학교 중 50%가 넘는 학생회칙에는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이 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정치적 성격을 띠는 서명운동에 참여를 해도 조항에 어긋나게 된다. 위에도 말했듯이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이다. 또한 기본권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장의 행정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살펴보자. 이것은 역시나 위에도 말했듯이 학생회의 목적이 자치활동이지만

- ① 학교의 입시위주의 교육에 인한 권리 침해 문제
- ② 학생회칙
  - (1) 승인, 재가
  - (2) 기본권 침해 명백한 조항
- ③ 다른 권한 위임과 법적 검토

2분



이것은 통제를 의미하며 또한 마땅히 학교운영에 참여해야 할(법적으로도 규정되어있는) 학교교육의 주체의 한부분에 학생이 참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런 규정뿐 만 아니라 학생회 임원의 자격제한, 또한 학생회장 후보자의 출마제한, 또한 선거 당선자의 학교장(학생회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 혹은 이런 학생회칙 조차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학교, 이런 학생회조차 없는 학교가 태반이다.

과연 이 같은 문제의 대안은 무엇일까? 바로 학생회의 법제화이다. 나라의 법으로 의무적으로 각 학교마다 학생회를 설치하고 또한 법으로 학생회칙을 규정하여 자율적인 학생회가 운영될 기반을 만들고, 학교 교육의 한 주체인 학생이 학교 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예를 들자면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회 혹은 학생의 참가) 제도적 기반을 닦아야 한다는 점이다.

2차년도동문 등수있는 기본적권인 권 보장은 모두  
고수생 권리 법 제언

### 3. 결론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획일적, 권위적인 입시 위주 교육에 의해 입는 인권 침해의 현상과 그로인해 청소년들의 가장 큰 권리 중 하나인 청소년자치활동은 어떻게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지 이야기 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의 원인은 전폭적으로 입시 위주 교육에 있다고 본다. '사회제도에 순응하고 비판적 논리가 결여된 엘리트'를 만들어내기 위한 대학입시교육은 참마저도 제대로 잘 수 없게 하면서 강제로 공부를 시키는,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를 유발시키며 이러한 모순점을 극복하고 청소년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할 청소년자치활동마저 방해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주어야 하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반하는 것이다.

더 멀리 보자면 입시 위주 교육의 근간은 바로 학벌 사회에 있다. 고졸보다는 대졸, 2류 대학보다는 1류 대학을 더 선호하는 학벌 사회는 입시 위주 교육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학벌사회를 타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입시 위주 교육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학교는 청소년들의 '꿈'을 위해 존재한다. '대학'과 '입시'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지금의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이라 말할 수 있는가. 언제까지 청소년들의 고통과 절망을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하루 빨리 반 인권적인 입시 위주 교육을 없애고, 민주적이며 청소년들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청소년들의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제도가 도입되게 해야 할 것이다.

### <첨부 자료>

#### (1) 강제자율보충신고센터(1318virus.net)에 접수된 신고내용 중에서 학생의 의견

학교 : [경기 수원]\*\* 고등학교

신고항목 : 0또는-1교시 | 강제보충수업 | 강제야간자율 |

신고내용 :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학교는 스승이

결론

결론

결론

라 부를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 메워진 듯 합니다. 선생님을 존중하고 배려하는만큼 선생님께서도 저희를 존중하고 배려해주셔야하는데 수원 유신고는 현재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학생이 자율 학습을 하지 않았다고 뺨을 때리고 발로 차거나 규정에 어긋난 몽둥이로 구타를 하여 아이들의 몸에는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누가 그런 짓까지 해가면서 애들을 학교에 잡아두고 싶으시겠만은, 선생님들의 의견이 아이들의 의견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참혹한 행위를 교육의 공간인 학교에서 자행하고 계신 것에는 동조할 수 없습니다.

수원 유신고 뿐만이 아닙니다. 수원에 있는 모든 학교가 지금 강제 야간 자율 학습 때문에 학생의 참된 교육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수성, 창현, 유신, 효원, 권선 등등 많은 학교에서 아이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수원의 일만도 아닙니다. 지금 서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의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한숨 소리가 가득합니다. 게다가 서울에서도 일부 학교가 몰래 강제 야간 자율 학습을 조금씩 하는 현상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참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교사가 학생에게 거짓말을 하고, 교육부에 거짓말을 하는데 학생들이 그 교사를 믿고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선생님들의 이기심입니다.

0교시를 수학- 재미있는 실용 수학 따위로 허위 조작하여서 강제로 학부모들의 귀중한 돈을 갈취해갔으며, 아이들을 때리는 것을 당연한 것인 듯 떠들고 다니십니다.

두발 자유 그런 거 필요없습니다. 학교의 교칙이니 따르라 하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면 학생측에서는 그 것을 비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의 목소리마저 묻혀버리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원 지역에 아니 우리 나라 전지역에 이러한 참혹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지 않도록 [청소년인권센터] 여러분께서 더욱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학생으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2) 일요일, 고교생이 실종된 도시([www.1318virus.net](http://www.1318virus.net) 기사 중에서)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강제 자율학습보충수업 시행령을 전교조 측과 협상하여 내린 바 있고 비교적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을 제외한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생들은 415 총선을 치루는 날, 어린이 날, 심지어 매주 일요일에 학교에 등교하는 등 서울 학생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 독립신문 바이러스([www.1318virus.net](http://www.1318virus.net))는 지난 5월 8일(토) 비평준화 지역의 하나인 포항을 찾았다.

평일과 달리 토, 일요일이면 명동, 신촌의 온갖 극장들과 거리에서 청소년들이 넘실거리는

서울과 달리, 포항엔 토, 일요일 모두 고등학생이 없었다. 나이 어린 중학생이거나 혹은 실업계 학생 소수만이 포항 시내에서 마주칠 수 있었다.

포항엔 고등학생이 없나?

포항의 고등학생은 어디에 있는가?

바이러스 팀은 일요일 아침 포항의 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며 고교생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다. 포항의 고교생들은 대체로 토요일, 일요일까지 강제적으로 자율학습보충 수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모습을 생생하게 바이러스 영상뉴스에 담아 보았다.

영상 뉴스

<mms://movie.heemang21.net/20040510/yaja.wmv>